

열정으로 빚어내는 현악의 선율

동아리플러스+ 펠리시타 앙상블

코로나19로 활동이 중단되거나 해체된 동아리들이 많아졌다. 이런 시기를 계기로 새롭게 결성된 동아리가 있다. 바로 펠리시타 앙상블이다.

펠리시타 앙상블은 '우리동네 맑은소리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만든 동아리다. 맑은소리오케스트라는 2017년에 창단이 되어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바이올린, 첼로와 같은 현악기로 구성된 동아리를 새롭게 만들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게 '펠리시타 앙상블' 동아리다.

연령대는 10~70대로 15명의 회원 가운데 전공자는 한 명도 없다. 모두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아리는 오케스트라처럼 지휘자, 파트별 악장, 수석으로 조직되어 있다. 회원들이 서로 멘토와 멘티가 되어 가르치고 배운다. 일주일에 한번 저녁에 모여 2~3시간씩 연습을 한다.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50~60대의 회원들이 주로 많다. 잘 안 보이는 악보를 돋보기 너머로 보며 연습하는 모습에서 열정이 넘쳐난다.

작년 부산문화재단 예술인과 동아리 협업프로젝트사업(예술동아리가 지역문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작은 음악회를

15명의 바이올린 첼로 연주자 나이 잇고 서로 배우며 가르쳐



열었다. 올해는 사하구가 지원하는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장림포구에 입점해 있는 밴드팀과 함께 콜라보 공연을 준비하여 10월 중 공연할 예정이다.

박명숙 부회장은 4년 전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포스터를 보고 외국여행에서 동네주민이 광장에 모여 연주하던 모습이 떠올라 용기를 내어 악기를 배우러 갔다고 한다. 악기에 처음인 회원들이 대부분이라 함께 연습하며 배울 수 있어 큰 기쁨이었다고 한다. 특히 작년에 몸이 아팠는데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 곡을 연습하며 위로를 받았다. 곡의 가사처럼 힘든 상황이 극복될 거라는 마음으로 악을 먹으면서 정



신력으로 버티며 연습에 매진했다.

김정숙 총무는 딸 결혼식 때 연주를 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악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클래식 어렵고 악보 보기가 힘들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음이 들려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50대인 지금도 늦지 않았고 시간이 걸려도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김순란 파트장은 원래 플루트를 연주했으나 첼로에 매력을 느껴 펠리시타에서 첼로로 다시 시작하고 있다며 악기를 배우러 가는 게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고 했다. 그는 손주들 앞에서 연주하는 '클래식 하는 할머니'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유영미 회장은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

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함께 연주하며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며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의 최종목표는 펠리시타 스트링 오케스트라를 결성하는 것. 사하구에도 현악기 오케스트라가 생기길 바란다고 했다.

회원 중에는 직장인도 있어 저녁에 연습을 하는데 장소가 부족하며 문화예술 공간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클래식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클래식의 대중화가 되는 중심에 펠리시타 앙상블이 있기를 응원한다.

김민정 평생학습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브레이크 쭉~ 밟힐 땐 오일 점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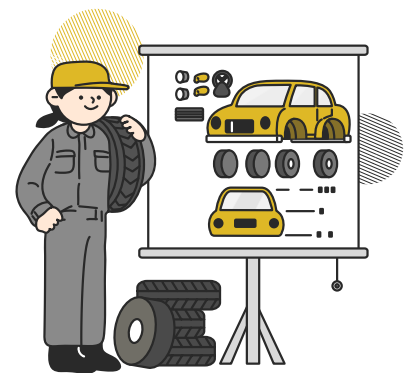
여름휴가철 꼭 알아야 할 자동차 정비 요령

'누구나 쉽게 배우는 자동차 자가정비 교실'이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렸다. 이 강좌에서는 자동차 기본 점검과 계기판 경고등 보는 법, 자동차 보험 바로알기, 외장 관리와 사고 대처 등 자동차 자가 정비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특히 초보 운전자 뿐 아니라 많은 여성 운전자들도 참여했으며,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이 진행되어 관심을 모았다. 강좌에서 소개된 자동차 정비 팁 몇 가지를 알아보자.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의 1순

위로 타이어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를 운행하거나 갑작스런 폭우로 빗길을 운전할 때 타이어 점검은 필수다. 제작년도가 5년 이상 지난 타이어는 장거리 운행 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공기압력은 평소보다 10% 더 많이 충전해야 한다. 타이어 마모가 심할 경우 빗길에 수막현상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안전운행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브레이크 오일 역시 안전과 직결된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분은 알겠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은 브레이크 오일 교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브레이크 오일은 브레이크 오일 라인의 수분 분산 작용을 한다.



오일을 오래 사용하거나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면 수분 분해 능력이 떨어진다. 고속도로를 주행하거나 잦은 브레이크 사용 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쭉~하고 페달이 힘없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베이

퍼록(vapor lock) 현상'이라고 한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서 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2년마다 혹은 4만 주행 이후에 반드시 교환 해 줄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습관이 있다. 계기판을 잘 관찰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려운 게 계기판 보는 것이다. 계기판 신호들이 신호등과 같이 역할을 한다. 초록불은 주행해도 되고, 황색인 경우 주의신호이며 빨강색은 무조건 점검해야 한다.

이경녀 평생학습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사하배움마당 배부처 : 사하구청, 각 동 민원실, 도서관, 복지관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배움의 열정, 男다르지 않았다

‘신중년 아카데미’ 공통과정 마쳐 남성대상 첫 강좌, 참여·호응 높아

4060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기 '男다른 신중년 아카데미'가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총 20회의 강의로 '공통과정'을 마무리했다. 사하구에서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처음 열린 이번 강좌는 수, 목요일 야간(저녁 7시~9시)에 모두 대면 강의로 이루어졌다. 낮 시간에 참여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히, 이번 강의는 85%의 출석율을 기록하며, 시중 높은 참여도와 열의 넘치는 강의실 분위기로 눈길을 끌었다.

다양한 계층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수강생들이었지만 강의를 통하여 공통의 주제에 집중하고 공감하는 동안 2시간의 수업시간은 매번 빠르게 지나갔다. 수강생 서현국(60세·괴정1동) 씨는 "강좌 운영 기간이 길어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강의 들을수록 재미있었고 신중년이

라는 이름에 걸 맞는 유익한 내용이 많았다. 직장생활에서 듣지 못했던 강의들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

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시기임에도 '집콕, 홈바리스타와 핸드드립', '아낌없이 주는 나무-목공예 재능기부', '생활

속 응급처치와 기적의 심폐소생술',

'파파메이드, 가족 반지갑 만들기',

'혼밥러의 필살기-만능장만을 활용

한 알탕요리' 등 전체강의 중 30%는

실습 중심 강의로 진행되었다. 조별

로 진행된 실습을 통해 강의 초반의

어색함을 날려 버릴 수 있었다. 매번

강의시간이 부족할 만큼 열중하게

만들어 그 즐거움과 다양한 프로그

램의 운영이라는 점에서 수강생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중식(65세·하단동) 씨는 "우리

세대에 유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강

의를 많이 고심하여 기획하였다고

느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좋



은 환경에서 실용적이며 알찬 강의를 받아 삶의 큰 활력소가 되었다"고 말했다.

실습 강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목공예 재능기부' 시간에 만든 12개의 목공예 2단 수납장은 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전해졌다. 수강생들은 열심히 만든 수납장을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관하여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이번 신중년 아카데미를 기획한 김은지 주무관은 "지금까지 가장, 아

빠, 직장에서의 직함으로 살아온 신중년 남성들이 은퇴 이후 또는 이 시

점에서 삶을 돌아보고 나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다. 수강생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으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통과정을 마친 26명의 수강생들은 9월 8일부터 선택과정을 수강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산야초와 약초, 식초와 발효, 전통주, 수목 등을 학습하는 자연친화화학과 영상 제작 기획, 영상 촬영과 편집에 대해 학습하는 영상미디어학부로 나누어지며 11월까지 이어진다.

박강균 평생학습구민기자
alberto1@hanmail.net

찰칵! 학습현장



피로한 하루, 기타 연주로 힐링해요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주는 기타선율이 흐르는 곳이 있다. 다대동 동네방네 학습관에서는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김광석 따라잡기' 주제로 기타 교실이 열렸다. 기타 교실에서는 '일어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등 김광석의 대표곡 3곡을 마스터했다. 수강생들은 무뎠고 피로한 요즘의 일상에서 비록 손가락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노래와 기타 연주에 몰입하며 보낸 수업시간 동안 행복감을 느꼈다고 한다. 종강 날에는 솔로 연주, 강사와의 듀엣 연주로 수업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김필봉 평생학습구민기자
shipbun@naver.com

갈게 · 엽낭게 · 넓적콩게랑 친구해요

사하자연학교 길을 따라

<4> 물론대 생태길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사하구는 자연을 배움터 삼아 생태 고우니 해설사들이 상세하고 재미있는 해설을 들려주는 사하자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하배움마당>은 사하자연학교 코스를 직접 따라가 보며 체험하는 기획을 시작한다. 각 탐방코스의 매력을 소개하고 사하의 자연을 느껴보고자 한다.

다대포해수욕장은 고운 모래와 일출·일몰로 유명한 곳이다. 물론대자연학교 5곳의 탐방코스 중 다대포해수욕장에 위치한 생태길을 따라 걷기로 했다.

탐방을 함께 하기로 한 가족이 삼삼오오 모였고, 이제는 일상이 된 체온 재는 일부터 시작했다. 생태길은 입구가 두 곳이다. 노을정 휴게소에서 가는 길과 꿈의 낙조분수에서 농구장을 지나 해솔길 끝자락에 또 다른 입구가 있다. 이번 탐방은 꿈의 낙조분수에서 출발하는 고우니 생태길을 선택했다.

생태고우니 김현순 강사는 농구장 옆의 소나무를 가리키며 바닷바람이 강해서 소나무를 방사림으로 심었다고 했다. 소나무가 없었을 때는 가게 앞 가득한 모래를 아침마다 쓸어 담는 수고를 했었다고 한다.

해솔길을 따라 고우니 생태길로 들었다. 데크 아래 새끼 송어들이 떼 지어 헤엄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물고기라고 외쳤다. 가까운 가덕도에 송어가 있어 다대포에도 새끼 송어가 있다고 한다. 송어는 바닷물과 민물을 오가는 기수어이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로 제사상, 잔치상의 단골 메뉴로 그리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

데크 양쪽으로 무수한 갈대가 흔들리고 있었다. 갈대숲을 지나면서 콩만한 게들이 재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의 눈동자가 게의 분주함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다대포에는 갈게와 엽낭게, 넓적콩게가 많다고 한다. 갈게는 갈대밭 진흙 바닥에 구멍을 파고 산다. 또 모래색깔인 엽낭게는 할머니 동전주머니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넓적콩게는 서해, 남해에 분포하고 만조 시에는 구멍(집)에 있다가 간조 시에 나와 먹이를 먹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한다. 양 집게 다리를 아래위로 흔드는 행동은 구애를 하는 모습이라고 한다. 구멍 주위에는 수십 개의 모래알갱이들이 있다. 게가 입에 모래를 넣고 먹이만 삼킨 후 모래덩이만 뱉어 낸 것이다. 정화된 모래를 뱉어내기 때문에 갯벌이 깨끗하게 되는 일에 보탬이 된다.

데크를 좀 더 걸어가면 염생식물인 통통마디를 볼 수 있었다. 염생식물은 세포에 많은 물을 저장하여 염분 농도를 낮추어 삼투압을 조절한다. 식물의 잎이나 줄기가 통통한 이유이기도 하다. 염생식물은 갯벌지역의 가장자리에 서식하면서 많은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고마운 식물이다.

데크 중간에 있는 쉼터에서는 설치미술의 작품 덕분에 힐링하는 느낌이 들었다. 갈대습지를 홀로 지키는 전망대에서 망원경을 통해 서평과 물놀이를 하는 사람의 얼굴까지 볼 수 있었다. 데크를 걷다가 해변으로 걸음을 옮겨 사구식물인 해당화를 만났다. 해당화는 늦은 봄부터 피며, 꽃이 지고 난 후에 굵고 둥근 열매가 붉은색으로 익는다.

쉼터에서 수생식물 줄기로 비눗방울 불어보는 놀이를 마지막으로 탐방을 마무리했다. 조병선(43세·괴정동) 씨는 산호조리원 동기들과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갯벌의 동·식물과 그 유용함을 배우게 되었다며 강사가 나누어준 교육 자료도 자세히 읽어봐야겠다고 말했다.

다대포해수욕장은 한때 금빛모래와 넓은 모래사장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부산의 코타키나발루’로 보기에 손색이 없는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넓적콩게의 구애 모습을 더 오랜 시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고우니 생태길은 데크를 따라 주변 생태를 탐방하는 코스이다.



생태길 데크에서 참여자들이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갯벌에 서식하는 게를 관찰하는 모습

김미연 평생학습구민기자
01hanthis@naver.com

새벽 어시장 일하며 ‘선생님 꿈’ 이뤘어요

평생학습 러닝스타

박희자 씨

다대도서관 배움 계기 문해교육 강사로 활동 ‘공동어시장’ 시집 펴내

주민강사 박희자(62세·다대동) 씨는 ‘놀면 뭐 하겠노. 공부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에 2018년 7월 다대도서관에서 열린 ‘문해지도사 양성과정’을 들었다. 처음에는 문해교육이 무엇을 배우는 것인지도 모른 채 수강신청을 했다고 한다. 어릴 때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서러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녀였기에 배움에 대한 열정이 컸다. 그 당시 그녀는 송도에 있는 공동어시장에서 장사 준비를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을 했다. 다대도서관에서 하는 오전 10시 수업에 맞춰 온다는 것이 힘들었지만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은 성실한 수강생이었다.

문해지도사양성과정 수료 후 사단법인 ‘다락’에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보조강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형설모두학교’에서 약 2년간 문해교육 강사를 했다.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가르치는 재미와



보람이 있어 재능기부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 인연으로 지금은 사하구 평생학습관의 한글교실 ‘쓰담학교 석봉반’에서 문해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사하문해동아리에서 회장을 맡고 있다.

“나도 공부하고 싶을 때 하지 못했던 아픔이 있어요. 할머니들에게 빨리 글을 가르쳐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지요. 글을 알고 세상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문해교육은 이 분

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수강생인 할머니들이 처음 교육을 받으려 할 때는 후줄근한 차림이지만 눈빛도 점점 초롱초롱 해지고 차림새도 단정해진다. 그녀는 변해가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며 힘이 나고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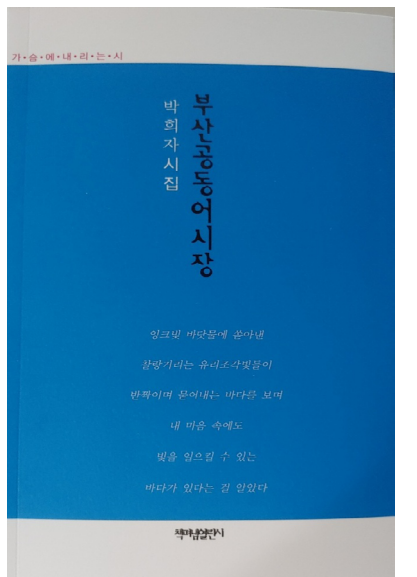
그녀는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공부를 하고 싶어 2013년에 방송통신대학교 국문과를 입학했다. 그때는 졸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인생 최대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다. 학교 다니면서 리포트를 자주 써야 해서 다대도서관을 많이 이용했고 자연스럽게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졌다. ‘문해교육지도사 양성과정’도 그렇게 알게 되었다. 그녀의 꿈은 선생님이었다. 지금 그 꿈을 소중하게 실천하며 가꾸고 있다.

졸업 후 여러 곳에서 상을 받고 시인으로 등단을 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쉽고 친근한 시를 쓰는 것을 목표로 지난 6월에는 그녀의 첫 시집 ‘공동어시장’을 펴냈다. 시 속에는 가족이 대거 등장하고 어시장의 아침밥상을 배달하는 덕수도 나온다. 그녀의 시를 읽으면 마치 공동어시장에 있는 기분이고

또한 가보고 싶어진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훌쩍 느낄 수 있다.

주민강사이자 시인강사인 박희자씨는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수강생인 할머니들에게 더 많은 배움을 나누기 위해 늘 탐구하며 실천한다. 앞으로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란다. 지금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나은 내가 되어있을 것이라는 ‘우문현답’이었다.

김정숙 평생학습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사하구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올해 첫 사업

| 코로나19 극복 물품 기부식



코로나19 극복 재능나눔 물품기부식이 7월 20일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기부식은 마스크 가족 목걸이 100개를 전달하면서 기념촬영을 하는 약식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 재능기부행사는 사하구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의 올해 첫 사업이다. 요즘 코로나19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동아리연합회 임원진과 회원들이 손수 마스크 목걸이를 만들어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기부식에서 장애인을 만나 마스크 가족 목걸이를 직접 장착해주고 장애인인 환한 미소와 감사함을 주고받는

장면을 기대했었다. 그런데 다시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져서 대면하는 모습은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이승민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여러 동아리가 모여 뭔가를 같이 만든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부하여 더욱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같이하지 못한 동아리가 많아서 아쉬웠다. 다음 재능나눔 활동에는 더 많은 동아리가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아리연합회는 치매어르신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가족카드지갑을 제작해 기부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고명옥 평생학습구민기자
arm5013s@naver.com